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9:1-16)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데로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 보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인간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많이 증거하는가? 보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써 놨다. 그런데 성경을 외워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이지요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기 바란다.

인생은 사실 이것으로 끝이다. 세상은 계속 발전한다. 옛날에 비해 많이 편안해졌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옛날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도 있다. 인간 사회에 대해 연구를 한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주로 마음과 생각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육신적으로는 편안해진다. 그런데 마음과 정신이 편안해야 하는데 편안하기는 한데 평안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중에 코로나도 왔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래 상당히 비대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우리에게 속도를 내라고 재촉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우리의 마음을 갱신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시대에 적응을 하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예배같은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와 기도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월을 지나고 나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중에 있는 모든 순서가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찬송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 아주 중요하다. 헌금도 하고, 헌금 아주 중요하다. 드리는 마음 없이는 내 마음에 충격이 안된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 아주 중요하다. 축도 전에 움직이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게 없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영적 특징들이 있다. 아브라함은 단이다. 다니엘은 기도이고 한나는 중요한거 하나 깨달았다. 한나는 중요하거 하나 깨달았는데 자기 인생 끝났을 뿐 아니라 그 나라 문제 역사가 끝났다. 요게벳 아주 대단한 결단했다. 물론 자기 힘이 아니고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었을 것이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사도바울의 특징은 전도와 기도였다. 다윗은 찬양과 기도였다. 그 외에도 모든 분들이 개인적 영적 특성들이 있다. 이 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이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면서 응답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는게 좋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배 안드려도 응답하실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욕을 했는데도 응답 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맨날 욕을 하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헌금을 예사로 생각하면서 경제의 축복을 받겠는가? 그런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거리가 좀 먼 생각이다. 그래서 전부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다리는데 뭐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들을 받아놓고 다른곳을 바라보면 어찌겠나? 내가 받은 말씀중 하나가 너의 기도가 답이라는 것이다. 그 때 그것 생각하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쳐다보기는 여기저기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것 어찌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비밀을 행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이다.

1.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7절에 나온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면 죽는 이유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 장면인데, 빌라도는 죄인 아니다. 죄를 못 찾았다고 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내가 믿는 사람인데, 상당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런 사람 한 국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놓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어디에 걸렸냐면,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 왕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짠 것이다. 이거 그냥 말하면 안걸린다. 종교니까. 그런데 왕이라고 했는데 가이사 앞에 누가 왕이냐는 것이다. 그래서 15절끝부분에 보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였다.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여기에 걸려든 것이다. 만일 이 사람을 놔주면 반역자를 놔주는 것이니가 자기가 목찰리는 것이다. 가이사 말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를 놔주면 안되니까 이런 정치적인 술수를 쓴 것이다. 그래서 할수 없이 재판석에 앉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다. 그런데 나중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죄 패에 세나라의 글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다. 그 이후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다. 빌라도가 거부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했다. 빌라도가.

이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오신 이유와 죽으신 이유가 같다. 예수님이 이땅에 왜 오셨는가? 가장 잘 설명한 문장이 마 16:16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나는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거야. 너 저주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너 사단의 머리를 깨야되지 않냐? 그 필요를 채워줄거야. 너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필요를 채워줄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나 아니면 안되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잡혀 있을 자가 아니다. 당연히 살아나는 것이다. 겨우 싸워서 살아난게 아니다. 원래 죽는게 아니다. 나는.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나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야.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죽은자도 살린다. 그 대표가 나사로이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 자리에서 살렸는데, 그정도가 아니고 죽은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도 살리는 것야. 그러니 하나님이지. 마음에 안들면 너도 해봐. 너도 하면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을거야. 너는 상상도 못하지. 오병이어의 기적. 누가 할거야? 니가 할수 있으면 너 안 믿어도 돼. 그런데 너 못하면 너 나 믿어야 니가 살거야.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물감을 탔냐? 물과 포도주는 다르다. 창조주 아니면 바꿀수가 없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아무도 방법이 없는데 나는 했다.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너희들은 손도 대기 싫어하는데 나병환자를, 나는 싹 고쳤다. 10명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줬는데 그중 한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절했다. 9명은 일단 안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고 없고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야. 다 살리는거야. 구원은 나의 특별한 다음 은혜지 모든 것은 싹 다 내것이야. 그 사람도 나 아버렸잖아. 그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한다. 세상에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 이런 질병 다 고쳤는데,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 내가 말하잖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백부장의 하인은 집에 있었다. 그런데 말만 했는데, 그 시로 나아버렸다.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세상은 그를 죽여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은 그를 죽여도 우리는 영원히 그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는다라는 말이다.

어제 리카르도 목사님이 와서 학사에서 잤다. 그런데 지금은 토랜스에 자기를 초대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다. 우리하고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마쓰다 목사님도 같이 가 있다. 그리고 내일은 리카르도 목사, 마쓰다 목

사, 유영렬 목사 함께 애리조나에 갈 것이다. 거기에 레이크 전도사님이 스페니쉬 교회에 문을 열었다. 거기서 팀사역하러 가는 것이다. 오래간만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했다. 그 교회에 이름은 같은데 리카르도인데 성도가 한 분 계시다. 이 리카르도 형제는 리카르도 목사님으로부터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물렸는데, 이 분이 마약을 25년을 했다고 한다. 25년간 마약 했으면 정말 끝인 것이다. 마리화나 25년해도 그럴것인데, 이 양반이 복음 받았다. 복음 받고 난 뒤에 출소해서 마약파는데 갔다고 한다. 그래서 그거 달라고 했다. 그리고 주사를 해봤다고 한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돈 내놓으라고 했다.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썩어 달라고 해서 주사를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때 깨달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분이 그정도 되었으면 얼마나 놀린 인생을 살았겠나?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놀려 있다가 어느날 살아났다. 치아파스에 가면 아주 복음을 사랑하고 목사 없이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 교회가 있다. 이 분들은 이스라엘 목사님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 메시지를 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사를 초청했다. 이스라엘 목사는 아직까지는 훈련이 부족하다. 그래서 리카르도 목사님을 소개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인데, 리카르도 목사님이 갈 때 리카르도 형제를 증인으로 데려가면 안되겠냐고 비행기표를 사달라고 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비행기표 사줘서 증인으로 함께 가게 했다. 거기 가서 처음 할때에는 다른 사람이 서고 그러니까 주눅이 들로 긴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둘째 시간부터 사람이 완전히 확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배운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너는 인생이 그렇게 살던 것이 뒤집어 진 것이다. 지금은 앤세나다에 사는데, 랜치에서 일하면서 사는데, 운데 알콜중독, 마약중독있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닌다. 가면 다 안다고 한다. 25년 마약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 다 아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헤로인이 뭔지 모르지만 센 마약이라고 한다. 주사해도 작용을 안하는데.. 참 놀랍다. 우리도 크고 작은 기적으로 산다. 나도 한번씩 어려움이 없을수 없다. 그러면 지나간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온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가야 할 곳이 있지만 답은 이곳이고 여기에서 다 끝내고 거기 가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그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답은 이거 하나 뿐이고 다른 것은 준계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을 내야 한다. 그냥 믿고 끝나는게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이라고 했다. 그것이 어디서 나는가? 깨달음에서 난다. 그는 정말 나의 그리스도라는 깨달음. 발견에서 오는 것이다.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그 때, 실질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힘낼 것도 없다. 그냥 움직여진다. 당연히 평생 거기에 올인하게 된다. 왜 올인이 안되냐면 발견이 아직 못해서 그냥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거기서 내 마음에 이미 답 났다. 드물다. 그냥 믿고 있지, 나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이런 사람은 안 많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가졌어. 많지 않다.

백부장은 이방인이다. 로마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에 답 났다. 머리 좋은 사람이다. 엘리트이다. 예수님이 하신 소문을 딱 듣고 경리하고 분석하고 편집했을 것이다. 어느날 답 나버렸다. 결론 딱 나버렸다. 무슨 결론이 났는가? 그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중풍병걸린 하인은 집에 놔두고 혼자 왔다. 보통은 데리고 온다. 무거운거 들고,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안하고 혼자 왔다. 하나님인데 뭐.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줄게 하나까 오실 필요 없다고 했다. 하나님인데.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했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려면 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수 없다고 하였다. 백부장이. 답이 딱 나 버렸다.

오늘 답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진짜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인가? 나의 경제문제? 내 자식, 가족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사단이 원인이 되는 문제 맞는가? 이것이 맞다면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다. 어디를 가도. 원인에 대한 답이 나와 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에 대한 답이 나와 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 가지고 땅 끝까지 가야 한다. 땅끝까지 가서 뭐할건가? 그리스도를 해야 한다. 땅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가?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나? 해야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냥 믿고 끝낸다. 그게 아니라 답이다. 답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인생 간단하다.

답이 있으면 인생은 너무나 간단하다. 답이 없으면 인생은 무지무지 복잡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무리 해도 안 풀린다. 앞에 문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뒤에 문제가 이미 와 있다. 그래서 답 되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 때 인생이 진짜 출발이 된다. 그 전에는 아직 출발 아니다. 방황이다. 때로는 알고도 방황, 때로는 천지도 모르고 방황. 물어보면 때로는 엉뚱한 소리 하고 지질난 소리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깊이 답이 나지 않아도 인생 그런데로 응답받고 살수도 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그렇게 살고 말 것인가?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답 내야 한다. 그리스도 답내고 전쟁하고 싸워야 한다. 사단은 끈질기기 때문에 계속 붙어야 한다. 이것 하고 있으면 백년의 응답이 온다.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 백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보면 특징 두가지가 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언약을 딱 잡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았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일을 찾았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백년의 응답을 받는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창세기 이야기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다 알고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 노아 홍수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꿈을 통해 할 일을 다 받았다. 모세도 본래 언약의 사람이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서 싹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고 있는데 어느날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다. 이래서 모세의 인생이 진짜 시작된 것이다. 성경의 인물 다 그렇다. 그런데 꼭 꿈을 꿴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경에 있는 말 외에 다른거 안 받아도 된다. 성경에 이미 말 다 해놓으셨다. 그 말씀 외에 따로 더 받을게 뭐가 있는가? 다 써놨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효과는 똑 같고 더 안전하다. 말씀 받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인생 이상해지고 돌아오려면 10년 20년 걸리고. 그거보다 다 써놓은거 믿는게 안전하다. 이렇게 답이 나면 인생 간단하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응답 역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보고,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심을 고백하게 된다.

답은 그리스도이다. 간단하다. 그리스도에 답하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다른거 잡으면 안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간단하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에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할수 있는 내 환경과 능력, 이것에 맞춰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 더 큰일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큰 인생이 되어야 하고 더 깊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주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은혜가 충만하기 바란다. 그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백부장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언약을 받은 자의 권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현장을 새롭게 축복하시는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